

“진로 설계하는 계기 마련 할 것”

도교육청, 남원·고창·군산 등 지역 맞춤형 진로박람회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맞춤형 진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직업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박람회를 연다. '2018 춘향골 진로직업박람회'가 오늘부터 남원 사람의 광장과 컨설팅리조트에서, '2018 고창 학교-마을 진로

교육박람회'가 11월 1일부터 고창 국립체육관에서, '2018 군산청소년 진로·동아리 박람회'가 11월 3일부터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이어진다. 춘향골 진로직업박람회는 다양한 '진로직업체험마당'이 51개 부스에서 진행되며 12개 기관의 '관공서 체험마당', 초·중·고 예술동아리의 '꿈·재능마당', '특강·사람책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 학교-마을 진로교육박람회는 '꿈을 담은 학교, 학교를 담은 마을'이라는 슬로건으로 마을과 음식·산업·문화·예술이 만난 고창공동체협의회의 32개 부스와 공공기관 체험 6개 부스가 운영되며 진로·직업, 미래·동아리 등의 부스도 마련한다. 군산 청소년 진로·동아리박람회는 드론체험, 특수분장, 로봇체험 등

중·고생 동아리 부스와 체험부스 51개를 운영하고 학술발표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토리가 있는 진로박람회를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별 진로박람회를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이 27일 전주 건지산 일대에서 도내 공·사립 유치원 120가족을 대상으로 '도시 락(樂) 갖고 숲으로' 토요 숲놀이 체험을 실시했다.

자녀와 함께 '숲이 주는 즐거움' 통해 소중한 추억 만들어요

전북유아교육진흥원, '도시 락(樂) 갖고 숲으로' 체험 실시

전북유아교육진흥원(원장 신순희)은 27일 전주 건지산 일대에서 도내 공·사립 유치원 120가족을 대상으로 '도시 락(樂) 갖고 숲으로' 토요 숲놀이 체험을 실시했다. 부모와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부모와 유아에게 숲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해 가족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형성 및 전북교육이 추구하는 놀이중심 통합교육이 가정에서도 실천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바른 인성 함양 및 나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다. 유아 126명, 부모 174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주말을 이용하여 전주 건지산 임금님 숲과 편백나무 숲에서 '이 이야기가 있는 가을 숲 여행'이란 주제로 총 12개의 숲 놀이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숲이

주는 즐거움'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자녀와 함께 공유하게 된 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 '놀이 동반자로서의 부모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동기를 제공해 준 진흥원에 감사함을 전했다.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은 앞으로도 부모 참여를 통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자녀교육 방법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부모-자녀 간의 교육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5급 승진대상자 18명 발표

중 합격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5급 승진대상자는 강기하(김제교육문화회관), 고영철(정읍고), 박석철(군산명화학교), 김상철(장수고), 김용문(임실고), 김종성(인

월고), 도혜숙(이리여자고), 박영태(군산교육지원청), 서유경(고창교육지원청), 신점갑(정읍중초), 양원영(전주교육지원청), 장경단(전주술내고), 장산미(군산중고), 정승혁(고창남초),

최진영(이리북일초) 이상 교육행정직 15명, 시설직은 김영주(시설과), 김학근(정읍교육지원청)이며, 공업직은 이종률(시설과) 1명 등 총 18명이다. 이번 승진대상자는 11월 19일부터 4주간의 승진 임용 전 기본교육을 거쳐 2019년 1월 이후 순차적으로 승진 임용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가을과 함께, 책 한 잔 어때?”

전주대, 지역주민 대상 독서클리닉... 도서관 런닝맨 등 다채

전주대 도서관과 기초융합교육원은 다음달 12일부터 일주일간 '2018 독서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가을과 함께, 책 한 잔 어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독서주간 행사는 전주대 학생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8가지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책 처방 약국 '독서 클리닉'이다. 독서 클리닉은 지치거나 상처받은 마음을 약이 아닌 책으로 치유하는 코너로, 신청자의 고민 사연을 접수 받아 추천을 통해서 고민을 치유할 수 있는 책을 약 처방에 담아 선물한다.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이용객은 '도서관 런닝맨'을 참여해서 미션을 통해 도서관 이용 방법과 기능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상품도 받아갈 수 있다. 도서관장 전용석 교수는 “독



서하기 좋은 계절 가을에 책과 친해지고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며, "즐겁고 유익한 전주대 독서주간 행사에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안내 사항 확인은 전주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lib.jj.ac.kr/>)를 통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너도나도 공모전 참여하세요”

전북교육청, 내달 20일까지 교육가족 대상 작품 공모

전북교육청이 '2018 너도나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전북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가족이 자유롭게 제작한 특색 있는 홍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공모 분야는 사진·웹툰·청렴슬로건·동시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면 된다. 청렴슬로건의 경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구호 형태의 간결한 문구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내일부터 20일까지로 전북지역 학생 및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http://news.je.go.kr/>)에서 공모전을 클릭, 공모전 접수 게시판에 출품자 인적사항과 작품 제목·작품 소개 등을 작성한 뒤 작품을 첨부하면 된다. 1인당 각 분야별 3편 이내로 응모할



수 있으며, 동시분야의 경우 초등생을 대신해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대리 접수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11월 30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